

# B형 간염 보균자인 임산부가 본인과 아기를 B형 간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B형 간염은 아기가 평생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임산부가 B형 간염 보균자인 경우, 분만 시 혈액 접촉을 통해 신생아도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감염을 예방하고 산모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임신 초기에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B형 간염에 대해 상담하십시오.

다음 도표에 따라 임신 기간은 물론 출산 후에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십시오!

## 산모

### 임신 중

- ✓ 임신 초기에 B형 간염 치료를 위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방문해 B형 간염 바이러스 수치와 간 기능 확인
  - 필요한 경우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B형 간염 약을 처방할 수 있음

### 분만 시

- ✓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병원 직원이 알고 있는지 확인
- ✓ 아기를 돌볼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임을 알고 있는지 확인

### 출산 이후

- ✓ 1~2개월 후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후속 조치
  - 이는 임신 중 치료를 시작한 경우에 특히 중요함
- ✓ 최소 6개월마다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B형 간염 모니터링을 위한 후속 조치

## 아기

### 분만 시

- 아기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후 12시간 이내에 백신 2회 접종
- ✓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HBIG) 1회
  - ✓ B형 간염 백신 1회

### 생후 1~2개월

- ✓ 2차 B형 간염 백신 접종

### 생후 6개월

- ✓ 3차 B형 간염 백신 접종

### 생후 9~12개월

- ✓ 혈액 검사를 통해 B형 간염 상태를 확인하고 보호 수준 평가

### 모유 수유

- ✓ 모유 수유 지원 및 산모와 아기의 혈액 접촉을 줄이기 위해 유두의 갈라짐이나 출혈을 예방 및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담당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 ✓ 신생아가 출생 시 B형 간염 백신과 B형 간염 면역 글로불린 접종을 받은 경우, 모유 수유를 통해 산모가 아기에게 B형 간염을 전파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아기가 해당 백신 접종을 받으면 모유를 수유하더라도 안전합니다.



산모의 임신 기간 동안에는 파트너와 동거인도 검사를 받고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